

데스크사각



채희중 편집부국장·사회부장

누구나 사는 동안 잊지 못하는 사람 한둘은 있을 것이다. 인생의 진로를 밝혀 준 스승이나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멘토, 부족한 나를 당치않은 믿음으로 지지해 준 친구... 낙엽이 떨어지는 이맘때면 첫사랑 순이도 있었고, 부모나 배우자를 여인 사람이려면 의당 그리움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채 이 가을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30년 전인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어려운 형편 탓에 사회에 대한 반발심이 강했던 20대 초반,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 준 이가 있었다. 올 한 해의 료 파업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더욱 생각나는 사람이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조선대병원에 입원하셨다. 약물 치료 과정에서 독성 간염이 생겨 내과병동 2인실을 사용했는데 병실에는 20대 후반의 청년이 먼저 와 있었다. 병명은 기억나지 않는데, 수만 명 가운데 한 명 정도 발생하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어 가는 질환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우리 병실에서 담당 주치의(내과 레지던트 2년차로 기억함)와 그의 선배로 추정되는 안과외사가 심한 언쟁을 벌였다. 안과외사는 청년 쪽을 한번 쳐다본 뒤, "김 선생, 저 사람은 끝났어요. 대책이 없으니 그 그러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과 외사는 "제가 어찌부터 여러 자료를 봤는데, 드물지만 내과적 원인으로 시력이 약해진 것일 수 있어요. 제가 보도록 해 주세요"라고 응수했다. 대화 말미에 안과외사가 "김 선생,

‘김원기 선생님’을 찾습니다

진짜 고집 세네. 그래요. 알아서 한번 해 보시오"라며 나가는 것이었다.

그로써 논쟁은 끝이 났지만 흡사 메디컬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열연하는 모습을 본 듯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과 함께 콧날이 시큰해졌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주치의 이름은 아직 생생히 기억한다. 김원기 선생님. 이후 신문기자가 된 뒤 외부 강의를 하거나 의사들을 만날 때면 김원기 선생님 얘기를 자주 했다.

의료 담당 기자로서 취재를 하거나 만난 의사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이는 광주 관천동의 한 내과 원장이다. 이름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성명을 밝히지는 않겠다. 알레르기를 전공한 그는 대기 환자가 많아도 한 명당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종합병원의 정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전화까지 걸어 재촉하고, 환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는 종합병원 의사에게 연락해 상태를 직접 듣는 등 환자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보인다.

30년 전 영화 주인공 같았던

그동안 훌륭한 의사 말고 각종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불량 의사들도 많이 봤다. 범죄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나쁜 의사'도 있다.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환자가 체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불같이 화를 냈다. "체한다"는 말이 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라며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환자는 교수의 말보다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 더욱 기분 나빴다고 한다.

"체하다"는 국어대사전에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배 속에 답답하게 차져 있다"는 뜻으로 등재된 어엿한 표준어이다. 환자가 의학용어를 모르고, 설혹 표현을 잘못했다더라도 환자의 눈높이에서 상담하는 게 의사의 기본 아닌가. 그 교수에게 묻고 싶다. "소화가 안

되고 오목가슴이 답답한데, 혹시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맹장염의 징조인가요?"라면서 잘난 체하는 환자가 혹시 오게 되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번 여름 모 대학병원 응급실 밖에서 생긴 일이다. 병원 자리를 잘 모르는 여든 가까운 할머니가 "아저씨, 주차장이 어디요?"라고 젊은 의사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네 번을 물어도 모른 체하자 할머니는 차를 돌려 의사 옆에 세운 뒤 또다시 물었다. 그러자 못마땅한 어조로 "저 아저씨 아닌데요"라고 말하더니 주차장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아들도 의사인지라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병원 밖 응급실을 지키는 젊은 의사면 전공의일 텐데, 젊은 나이에 노인들에게까지 존칭을 들으려는 이런 '버터장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를 모르는 고집 센 의사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 부여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물론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의정 대립과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굽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적성과 실력을 떠나 고교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 꾸꾸는 직업의 의사이다. 믿음과 선망의 대상인 만큼 의사의 일탈 행위와 실망스러운 태도에 대한 비난 강도는 거셀 수밖에 없다. 지금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으로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있음에 감사한다. 하지만 의사들은 국민이 의사보다 정부 편에서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김원기 선생님! 아버지를 잘 치료해 주셨는데 30년 전에는 제가 어려서 고맙다는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편칼럼



박형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연령상 고용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50-54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였다. 만 60세에 환갑잔치를 하던 때, 노후 대비 관심사는 주로 건강과 돈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60세는 장수를 축하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이다. 현 시대에 맞게 유엔이 정한 나이 분류에 의하면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80세 미만은 중년, 80세 이후를 노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엔의 분류가 어찌지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5세라는 것, 즉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다. 모 금융회사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50대 퇴직자의 65%는 퇴직 후유증을 앓는다고 한다.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에 노후 대비는커녕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돈이 가장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인생 3모작 시대

우리는 지금 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이는 오래 사는 것은 '저주'라 하지만 전통적 사고로 장수는 축복이고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생의 후반세기,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이다. 건강과 돈은 삶에서 언제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퇴직 후의 삶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을, 성공한 매체는 n모작을 들먹인다. 일반적으로 평균 퇴직을 기준으로, 50-69세가 2모작, 70-89세를 3모작 시대로 구분한다. 다모작 시기에는 자립 경제, 취미, 봉사 활동, 평생 학습의 욕구 외에 육신 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인생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영적 관심도 깊어진다.

인터넷에 뜨는 '인생 삼모작-인생 나눔학교'가 눈길을 끈다. 프로그램중에 청소년들과의 상호 협력은 상생을 위한 좋은 시도이다. 지속적인 학습, 독서, 봉사활동, 다양한 자격증 취득 등 어떻게 여생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한 귀한 지침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이다. 그는 '100세를 살아 보라'에서 60에서 75세까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그는 집필과 강연 등으로 무척 바쁘게 살고 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1911-2017) 박사는 104세에 쓴 '100세 시대를 살아갈 비결'에서 75세를 넘기면서 진정한 인생, 진정한 자신이 시작된다고, 그 전까지는

예비 인생이라고 한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계획하는 일을 말로 표현하는 유언실행(有言實行)을 권한다. 장수인들의 공통적인 생활 양식은 소식(小食)과 부지런함이다. 두 백세 오장들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일부러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리는데는 대목에서는 일반 상식을 도전받는 느낌이 든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지난 세월은 성공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도 축적된 자산이고 고유하고 특별한 스펙이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의 모지스(Moses, 1860~1961) 할머니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관절염으로 인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76세에 시작하여 25년간 그린 1600여 점의 세밀화에는 그녀의 유년 시절부터 나이만큼이나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경로당 숫자가 꾸준히 늘어서 2019년에 6만 60737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인 복지 여가 시설들이 현 상태로 60대 이상의 장년들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경로당 지원금은 금액 대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 개념을 넘어서 인생 3모작 시대에 걸맞은 생산성과 의미를 창출하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때이다.

100세 시대는 다른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社說

80년 그해에 쓴 광주 고교생들의 글을 보며

"5월 20일에는 도청으로 친구와 가는 도중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무수히 얻어맞아 피멍이 들어 죽어 있는 시체를 달구지에 싣고 몰고 다니는 인파를 본 것이다. 얼마나 맞았으면 그렇게 됐을까." 5·18민주화운동 직후 고교생들이 5·18에 대해 겪고 느낀 바를 기록한 '단체 작문'이 39년 만에 공개됐다. 이들이 글을 쓴 시점은 신군부의 유휘 진압으로 5·18이 막을 내린 지 10개월 뒤다. 따라서 이 작문집은 5·18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진 집단 증언인 셈이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은 어제 열린 학술대회에서 40년 전 5·18을 경험했던 광주 석산고 1학년생 186명이 쓴 '5·18 작문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작문집은 석산고 국어교사 이상운 씨가 1981년 2월 말께 1학년 학생들에게 내준 숙제였다. 작문집은 같은 해 5월 동료 교사인 박형민 씨에게 전달됐고 이후 1987년 전주고 광주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에 기증된 뒤, 지난 7월 5·18 기록관에 기탁됐다.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가 지금 현재 계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얻어맞아 피멍이 들어 죽어 있는 시체를 모두 한자리인 걸 보면 광주 시민의 국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구나 하는 걸 느낀다."(최병문) "이 사건을 굳이 '사태'라기보다는 '의거'라고 칭하고 싶다. 정부에서는 이를 일부 불순분자의 책동이라고 했으나 이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다."(서충렬) "광주사태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아픔으로 끝을 맺었지만 맨 처음 시도의 의의를 생각해 볼 때 정당한 민주적 권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서왕진)

많은 이들이 5월의 진실에 눈을 감을 때, 진실을 말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때, 아직 어린 그들은 생각하고 보고 느낀 바를 가감 없이 그대로 써 내려갔다. 당시 고교생들의 편지를 읽노라면 다시 그날로 돌아간 듯해 숙연해진다. 어린 학생들이 숨을 죽여 가며 저마다 목격한 진실을 꼭꼭 눌러썼을 모습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먹먹해진다.

‘미디어아트 광주’ 창작 기반 구축 서둘러야

광주시가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광산업·인간·예술을 결합한 창의산업을 집중 육성,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어 창의도시 지정 이듬해인 2015년 시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사업단을 주축으로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17년에는 지역 최초의 홀로그램 전용극장과 미디어338 디지털 갤러리 등 여섯 개의 특화 공간을 갖춘 광주 플랫폼을 개관했다.

그해 10월에는 16개국 17개 도시로 구성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부(副)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됐다. '코디네이터 도시'인 프랑스 앙기앵레방과 함께 창의도시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이처럼 광주는 그동안 미디어아트 인프라 구축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로 미디어아트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내년으로 예정된 미디어아트 융복합센터의 성공적인 개관이 중요하다. 이 센터는 미디어아트 창작과 산업 지원 및 교류공간 조성으로 광주 미디어아트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광주역·시립미술관 등 광주 곳곳에 있는 창의적 자원을 연결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콘텐츠 생산·교육 및 교육 활성화 등 미디어아트 생태계를 튼튼히 함으로써 창의벨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아티스트를 꾸꾸는 학생과 청년 작가들을 위한 교육·연구·전시 기반을 먼저 탄탄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맛의 고장" 전라도에서도 가장 전라도다운 음식이라면 흥어가 아닐까 싶다. 흥어는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만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호도가 극과 극을 보여 주는 음식이다.

흑산도 흥어는 5kg 한 마리에 20-30만 원이나 할 정도로 국내에서 나는 어류 중 가장 비싼 어종인데도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전히 사철 흥어를 찾는 이들도 있지만, 수도권이나 젊은층에서 싱싱한 흥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형 어선 기준으로 6척이던 흑산도 흥어잡이배는 올해 7척으로 한 척 늘었고 소형어선까지 포함하면 12척이 흥어잡이에 나서고 있다. 흑산흥어 유통량은 지난해 283t에서 올해는 34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조업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성수기다. 하지만 설과 추석 명절 전후 2개월에 가장 많이 유통된다. 이때는 주문받은 흥어를 써서 사람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일손이 달린다. 흑산도에는 마리당 2~3만 원을 받고 흥어를 썰어 주는 전문 '칼잡이'가 있는데 명절 시즌에는 일당 100만 원

을 벌기도 한다. 전문 칼잡이가 아니더라도 성수기에는 신안과 목포 흥어 전문점에서 흥어만 썰어 월 500만 원의 수입을 내곤하 올리는 이도 있다.

최근 흑산도에서 '흑산흥어 썰기 학교'가 6개월 과정을 끝내고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흑산 주민자치위원회가 흥어 손질과 썰기 방법의 계승 보전을 위해 마련했는데 인기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등록한 15명 중 11명만 수료할 정도로 그리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매주 한 차례 이상 모여 전문가로부터 까다로운 흥어 썰기부터 진열과 포장법까지 익혔다.

최서진 흑산흥어 썰기 학교장은 "수요는 느는데 전문가는 고령화 되고 있어 인력 배출을 위해 학교를 마련했다"며 "반응이 좋아 내년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벌써 마감됐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흑산흥어만 썰어 수입이 보장되도록 흥어회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흥어 썰기 민간 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만간 토속 음식도 알리고 수입도 올리는 이색 직업 하나가 탄생할 것 같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기 고



신상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편성에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확대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0조 2520억 원 중 농업 분야 예산은 2678억 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1.3%에 불과하다. 농업 정책이 소외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된 탓일 것이다.

비록 농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고 농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럴수록 농업인들이 갈망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스마트팜 등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농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비단 이뿐 아니라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16조 132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에서 역대 최저인 2.9%를 기록했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555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

미래 농업 위한 농업 예산 확대해야

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지만 2018년 3.4%, 지난해 3.1%, 올해 3.1%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3%마저 무너졌다.

지금 농촌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제자리걸음인 농가 소득, 도농 소득 격차 확대, 40세 미만 청년 농가 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 증액 등 대한민국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농축산분야의 피해가 커지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 우려로 초종교 전일 등교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은 판로를 잃은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선 채소류 등은 저장성이 낮은 특성으로 월값에 판매하거나 산지 폐기할 수밖에 없고 졸업과 입학 을 비롯한 각종 행사 연기사 취소에 따른 화훼 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농업인들은 좀 더 과감한 지원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예산 확보와 일부 산업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상대적으로 농업 관련 예산은 감액되어 '농축산업 홀대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

을 중단했고 이는 식량 무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식량 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위험 가능성은 상존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우리는 겪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업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년 전 만해도 식량 부족 국가였다. 농축산업을 국가 근간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그에 맞는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농축산 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물론 뉴딜 정책에 농업 분야 정책을 추가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 분야 예산을 절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고객을 만족시키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듯이 우리 농업 정책도 그래야만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이번 뉴딜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미래 농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농업계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기대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